

## [인터뷰] 가르침에 대한 성찰

‘제2회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

김종원 교수의 「꿈꾸는 공대생」

김종원

1978년 서울대학교 계광학과 졸업

1980년 KAIST 기계공학과 석사 졸업

1980~1984년 대우중공업 재직

1987년 미국 워스콘신대학교(메디슨 кам-

파스) 기계공학과 박사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계항공공학과 교수

이번 호 ‘[인터뷰] 가르침에 대한 성찰’ 코너에서는 제2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한 기계항공공학부의 김종원 교수의 메세미 「꿈꾸는 공대생」을 요약·정리하였다.

### 꿈꾸는 공대생

자네들은 곧 이 교정을 떠나서 사회로 나갈 것이다. 대학원을 진학하든 산업체에 취직을 하든 그것은 당장 눈앞의 진로일 뿐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네들이 과연 20년 뒤에 자기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과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그러한 꿈과 비전이 없이 그저 학기말고사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네들은 과연 학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정도의 시간과 노력만이라도 자네들의 꿈과 비전을 굳히기 위해서 투자를 해보았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만이라도 대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쓴 책을 읽고 나도 20년 뒤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고 꿈꾸는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점점 더 포화상태로 치닫는 경제 현실에서 아무런 꿈과 비전 없이 그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 신문에서 떠드는 피상적인 기사에 자네들의 소중한 미래를 맡기고 있지  
나 않은지 걱정이 된다.

왜 자네들은 서울공대생으로서 20년 뒤에 톱(top) 1% 이내에 드는  
CEO, 전문 연구직, 교수, 창업가 등을 꿈꾸지 않는가? 왜 자네들은 지금 이  
순간 자네들 나름대로의 큰 바위 얼굴을 그리지 않는가? 왜 사회 현상만 탓  
하고 있는가? 과연 자네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을 확실히 세우  
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던가?

20년 뒤의 자기 자신의 모습, 즉 꿈과 비전이 가슴속에 확실하게 없는 상  
태에서 지금 죽을힘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 평균적인 위치의 엔지  
니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서울대를 없앤다고 난리를 쳐도 자네들  
은 톱 1% 엔지니어가 되어 리더 그룹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리더가 필요하다. 나는 자네들이 바로 이런 리더가 되기를 원  
하며, 그런 리더가 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엔지니어로서 20년 뒤의 자네들은 결국 크게 보

면 다음과 같은 다섯 종류의 모습을 꿈꿀 수 있다:

- **대기업 CEO:** global top class 대기업의 CEO 또는 핵심 중역이 되어 활동한다.
- **창업가:** 기술 기반의 top class의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엄청난 돈을 번다.
- **전문 연구직:**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교수:**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홀륭한 교수가 되어 교육과 연구에 몰두한다.
- **전문 행정직:** 공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top class의 변호사가 되거나 정부 관료가 되어 기술 문제가 개입된 법적 소송을 처리하거나 중요한 국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위의 다섯 가지의 모습 중에서 어떠한 것도 자기 가슴에 공진과 같이 와닿는 모습이 없으면 하루 속히 엔지니어가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학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위의 다섯 가지 길을 간 사람이 쓴 책도 읽고 인터넷도 검색하면서 엔지니어로서의 자네들의 꿈과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손톱만큼의 노력을 해보았는지 하는 것이다. 그저 언론에서 걱정하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자네들도 같이 걱정하며 주저앉고 있거나 않은지 모르겠다. 이공계 기피 현상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자네들의 꿈과 비전이 없음이다.

다섯 가지 길을 간 사람들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자네들 나름대로의 20년 뒤의 모습이 그래도 더 확실하게 잡힐 것이다. 이것은 마치 5명의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마지막에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과 같다. 5명을 각각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해서 점점 더 잘 알수록 이 여자 또는 남자야말로 정말로 내 친구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확

실해진다. 그런 노력도 없이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하겠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절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도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이다.

그 꿈과 비전은 가슴 벅찬 그런 것이다. 그러나 실현하기에 거의 불가능 해 보이는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아 정말로 나는 이런 굉장한 모습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 술 마시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천장만 쳐다보면 가슴속에서 꿈과 비전이 저절로 새겨지는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벅찬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 바로 1ms 정도나 되겠나 하는 찰나의 순간 후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단칼을 내리치게 된다. ‘네가 무슨 수로 그렇게 되겠냐? 너는 이러이러한 성격이고, 돈도 없고, 경쟁이 심한데 그게 되겠냐고. 그 사람은 천재이어서 그렇게 되었지, 네가 무슨……’ 이런식의 단칼이 자네의 꿈과 비전을 무자비하게 도려낸다. 그것은 일종의 열등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서울대생이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열등감은 더 강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랬으니까. 명문고와 서울공대에 박사까지 마쳤지만 오히려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기가 죽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 말이다. 심지어 잘 노는 녀석에게도 열등감을 느낀다. 자네들도 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서울대에 들어온 이유이다. 모두 다 결국 자네들을 도와줄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그런 단칼 앞에서 ‘아직 해보지도 않았지 않았나. 해보고 나서, 죽을 힘을 다해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결과를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꿈과 비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그 단칼을 바로 박살내야 한다.

세상에 가장 멍청한 것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이다. 해보지도 않고 이 꿈 저 꿈 잘라버리다가는 남는 것이 없다.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결국 그럭저럭 살다가 평균치기 something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꿈과 비전을 미리 잡고, 죽을 힘을 다하고 나면 실현 불가능하게만 보아졌던 꿈과 비전을 결국 실현하게 된다. 죽을 힘을 다했으니까 말이다.

자네들의 미래를 꿈꾸는 것은 자네들의 특권이다. 그런데, 서울공대생인 이상 그러한 찬란한 미래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그것은 군대에 가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자네들에게 지어지는 무거운 짐이기도 한 것이다. Ⓜ